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 준비 완료

3~5일 항공센터 일원, 볼거리·체험거리 풍성 공영민 군수 “지역항공산업 육성 신호탄 될 것”

고흥군(공영민 군수)의 지역 항공 산업 육성의 신호탄이 될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 이목을 끌고 있다.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는 '고흥, 드론·UAM과 함께 미래를 현실로'라는 주제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3일간) 고흥 항공센터 및 드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에, 군은 지난달 31일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실단과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드론존과 UAM존, 주차장, 그 밖에 휴게쉼터 및 편의시설 등을 도보로 이동하며 관람객의 입장에서 현장 구성구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먼저, 드론존 구역 현장점검에서는 고흥드론센터 입구부터 내부 전시체험 부스, 향토음식관, 휴게쉼터는 물론 부대 행사장 등이 꾸며지고 있는 곳을 상세하게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UAM존 구역에서는 개막식 동선을 점검하고 전시체험관 등을 둘러봤다. 특히, UAM존은 역대 어느 곳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순수 국내개발 실체 UAM 기체와 국내 최초 버티포트를 갖춘 고흥군에서만 볼 수 있는 비행시연, K-UAM 그랜드스텔리지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시체험관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구역으로 관람객들이 집중 방문이 예상되어 세심한 안전 점검이 필요한 구역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후에는 공영민 군수는 행사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이고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 드론·UAM 산업의 발전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드론·UAM 시장 확대에 따른 고흥군의 항공인프라 시설을 대내외 알리는 계기는 물론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광양, 소아·영유아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신규백신 접종 권고

광양시는 12세 이상에 이어 고위험군 소아(5-11세) 및 영유아(6개월-4세)도 1일부터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XBB계열) 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접종은 XBB.1.5 신규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고위험군 소아 및 영유아가 권고 대상이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미만 소아·영유아도 희망하는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소아(5-11세) 및 코로나19 접종력이 없는 영유아(6개월-4세)는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

규백신으로 접종하며,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국내 도입 예정인 영유아(6개월-4세)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으로 추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소아(5-11세)의 경우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 내 신규백신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영유아(6개월-4세)의 경우 백신 종류에 따라 정해진 차수(모더나 2회, 화이자 3회)를 접종해야 완료된다.

'23-'24학기 코로나19 소아 및 영유아 예방접종은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차소아청소년과 의원 등 3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광양=조순익 기자

구례, 치매파트너와 함께 벽화그리기

구례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플러시)와 함께 벽화 그리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친구처럼 도와주며,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뜻한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10여 명의 치매파트너(플러시)와 함께 구례읍 테니스장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치매파트너 중 한 주민은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치매를



극복해 가는 큰 힘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며 "아직 남아있는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라지도록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 참다래 수확 계양병 방제 당부

광양시는 명품 광양참다래의 막바지 수확시기인 요즘, 계양병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과 계양병 방제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참다래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계양병에 감염될 경우 가지에 균열이 생기고 균열 부위에서는 적갈색의 세균 유출물이 흐른다. 또한 계양병은 전파가 빨라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양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양은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참다래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70여 농가가 약 26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주 품종은 골드키위 계통인 '해금'으로 다른 지역보다 당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나며,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광양참다래는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품질 참다래 생산과 나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참다래 수확 이후와 겨울전정 후 새순이 나오는 시기에 반드시 계양병 방제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참다래 재배시설 설치 2개소와 서리피해 예방 공기순환팬을 5개소에 지원해 참다래 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참다래 생산에 힘쓰고 있다.

곡성, 주민참여형 양수발전소 주민 공감대 형성

상황식 의견수렴방식으로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기대

곡성군이 지난 4월부터 준비해 온 곡성 친환경 에너지 양수발전소 유치 결실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양수발전소 예정부지는 보성강 지류에 위치한 지점으로 축곡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의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시작했다. 이들은 고치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난 후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는 상황식(bottom-up) 의견수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했다. 또한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유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7곳의 양수발전소를 직접 견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주민 이유는 수물기구 이주단지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 관광자원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구 유입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곡성군은 2019년 선정된 포천시, 영동군의 발전소 주변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자료를 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양수발전소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수물기구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하루뿐 조성으로 사라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소 유치로 인한 1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호남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 감소, 지역 발전 촉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지원 등을 이유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곡성=황상연 기자

보성, 민선 8기 군수 공약·지시사항 보고회 개최

이행 실적 집중점검·향후 계획 등 논의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개최해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 및 지시사항 소관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여간의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홀몸 어르신 돌봄 로봇 보급, △ 군청 주요 사업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 초·중·고등학교 100원 버스 도입, △ 화재경보기 등 주거 안전시설 지원, △ 어르신 백내장 수술 지원 등 15개 공약사업이 조기 이행됐으며, 나머지 66개 사업도 순조롭게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 '장천 몽미락 페스타' 개최

4~5일, 버스터미널 도시재생 사업지구 일원

순천시 도시재생 장천현장지원센터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순천 버스터미널 도시재생 사업지구 일원에서 거리별 골목축제 '2023 몽미락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포기정원(장천동 18-15), 장천노랑극장(장천6길 8 등 장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장천·남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상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는 ▲반포기정원 달밤 캠프 피크닉 ▲노랑극장 추억의 놀이터 ▲노랑극장 몽미락 레트로

포차 등이다. 장천현장지원센터는 장천·남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터미널 신규창업자, 특화먹거리존 입점 창업자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억의 고전 영화 포스터 야외 전시(터미널 주차장 옆 몽미락 거리), 차차추 추억의 결혼사진 및 포토존,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행사 등이 운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즐겨주시길 바라고, 축제가 앞으로 장천·남제 도시재생 사업 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찜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yKbSbh69gCpyQ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